

“교육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속하게 하는 핵심”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강연
“토론과 소통으로 공존 배워야”... 전남 학생들과 질의응답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 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 연사로 나서, 교육의 헌법적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문 전 재판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이처럼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는 교육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히 구분된다.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문 재판관은 민주시민교육의 세 가지 가치로 ‘정신(魂), 창조(創), 소통(通)’을 제시하며, 자신의 인생 면면에서 발견한 인권 감수성과 창의적 사고,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는 소통의 힘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이어지는 토크 콘서트에서는 전남학생의회가 진행을 맡아, 학생들과 문 전 재판관이 교육과 헌법, 민주주의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학생들은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



▲ 민주주의 기본 원칙, 자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등 심도있는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

문 전 재판관은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공존을 배울 수 없다. 진정한 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며, 토론과 소통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전남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헌법교육 강화 정책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도민 등 약 400명이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염선호 기자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 마련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신숙)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장 및 회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 단체장들을 격려하고, 단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자원봉사센터의 중점사업 방향 공유와 함께 재능기부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단체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랑의 밥차’ 활동단체가 발표한 재난·재해 지역 지원 사례는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조직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지역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역 발전은 행정

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더 따뜻한 순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이신숙 센터장은 “앞으로도 단체별 소그룹 간담회를 통해 자원봉사단체장과 회원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하며 실질적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순천시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단체나 개인은 순천시 자원봉사센터(061-746-4024)로 문의하거나 센터 누리집, 밴드 등 SNS를 통해 성향에 맞는 활동을 연계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광양시, 농협과 손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박차

5개 시군 농축협, 총 6천만원 규모 교차기부... 지역 상생 실현

광양시는 6월 13일 시청 시민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교차기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화 시장을 비롯해 5개 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 13개 농축협 조합장 및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간 상생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교차 기부는 광양시 농협 7개소와 고흥·곡성·구례·남해 지역 농축협 8개소 임직원이 참여해 총 6천만 원 규모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부는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지부

장 이두식)와 고흥군지부(지부장 홍성표) △광양농협(조합장 허순구)과 고흥농협(조합장 조성문)·동남농협(조합장 이은영)·옥과농협(조합장 구정훈) △동광양농협(조합장 이돈성)과 산동농협(조합장 허재근)·구례축협(조합장 최정범)·구례농협(조합장 노성원) △광양동부농협(조합장 문정태)과 팔영농협(조합장 정영만) △진상농협(조합장 임대영)과 옥과농협(조합장 구정훈) △다압농협(조합장 김종연)과 구례농협(조합장 노성원) △광양원예농협(조합장 김영배)과 팔영농협(조합장 정영만) 간에 이뤄졌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교차기부는 서로의 지역을 응원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연대의 표현”이라며, “지역 간의 경계를 넘어 상생하며,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 답례품이 제공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보성군, 벌교읍 관내 1인 남성 가구 60세대 밀반찬 나눔 봉사

별교여성자원봉사회 직접 밀반찬 만들어 고독사 예방에 앞장

보성군은 지난 12일, 벌교읍 여성자원봉사회가 관내 1인 남성가구 60세대를 대상으로 밀반찬을 전달하는 ‘희망잔(饌)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별교여성자원봉사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열무김치, 장조림 등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조리하고 포장한 뒤, 벌교읍 직원들과 함께 대상 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

고 말벗이 돼주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벌교읍 여성자원봉사회 김미숙 회장은 “관내 1인 남성가구에 회원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건넬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밀반찬 나눔 봉사를 통해 고독사 예방 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서진석 벌교읍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해 주



시는 별교여성자원봉사회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함께 나누는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윤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어르신 위한 ‘리마인드 사진관’ 사회공헌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11일 더불어라노인복지관(광주 광산구 소재)에서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과 젊은 시절 변환 사진을 제공하는 ‘리마인드 사진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수사진 촬영과 AI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젊은 시절 사진을 함께 제공하

여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였다. 아울러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봉사단이 함께 준비한 삼계탕을 어르신들께 제공하였다.

이영희 본부장은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마련한 행사에서 어르신들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소통·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